

##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황성현\* · 이강훈\*\*

### 초 록

이 연구는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이용하여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 세 가지 비행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이 한국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9년과 2010년도에 수행한 아동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 중 종1과 종2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사회유대이론의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을 거의 설명하지 못했으며 일반긴장이론의 일부 변인들과 사회학습이론의 모든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유대 변인과 일반긴장이론의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의 변량을 각각 2.4%, 7.7%만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학습 변인은 청소년비행의 11.3% 변량을 설명함으로써 설명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의 변인 중에서 친한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변인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회귀방정식에서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청소년비행을 통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청소년비행이론에서 가장 많이 검증된 세 가지 이론을 동시에 적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청소년비행,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일반긴장이론

\*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강원도립대학 해양경찰과 교수, 교신저자, gwpcmp@gmail.com

## I. 서 론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비행이론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이론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행이론이 존재한다. 거시적 측면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적 왜곡과 모순 때문에 청소년비행이 발생한다고 보는 반면 미시적 측면은 청소년이 속한 가족과 개인의 환경적 측면이 청소년비행의 발생 원인으로 파악한다. 심리적 측면은 거시적, 미시적 관점과는 달리 청소년이 어떤 사회 구조적, 개인 환경적 측면에 처해 있더라도 개인의 비행선택 여부에 따라 비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심리적 관점을 중시한다. 이런 이론들은 최근까지 서구사회와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적 검증과정을 거쳐 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경험적 검증과정을 거친 이론은 주로 미시적 관점인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은 비행을 파악하는 기본 가정이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서 출발한다. 사회유대이론은 “왜 청소년들은 각종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반면 사회학습이론은 “왜 일부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는가?”로 시작한다.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유대와 통제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청소년들은 비행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그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사회학습이론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비행이론은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요인에 주목한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일부만 비행에 가담하며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비행의 원인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비행을 서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행이론은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 개인의 환경이 어떠한 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결정적 이유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한 심성을 가졌거나 청소년을 에워싼 각종 스트레스, 우울, 불안, 충동성 등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비행이론을 한국 청소년들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어떤 이론이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회유대

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은 1980년대부터 서구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적 검증과정을 거쳐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했으며 일반긴장이론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검증된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유대이론과 학습이론은 2000년대 이후부터 검증되기 시작했으며 일반긴장이론은 최근 몇 년간 간헐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위 세 가지 이론을 각 각 사용하거나 세 가지 중 두 가지(특히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를 비교 검증한 연구들은 제법 존재하지만 위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검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전영실, 2007; 황성현, 2010, 2012).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에 나타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사회유대, 사회학습, 일반긴장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며,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이 한국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경험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 II. 이론적 고찰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의 기본 가정은 “개인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깨졌을 때 비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Hirschi, 1969). 즉 모든 청소년들은 잠재적인 범죄자이지만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친구, 부모, 학교 등의 원초집단의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유대이론은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의 네 가지 개념으로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애착은 타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는가, 얼마나 그들을 존경하여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가 등의 정도를 말한다. 즉 원초집단인 부모나 친구집단과의 애착이 약하면 아이들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여는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저축을 하는 것처럼 관습적인 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부족하면 일탈행위를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 관여는 학생의 신분을 고려하여 학교에서의 성적(GPA)을 관여의 대표적 측정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참여는 학교, 여가, 가족과 함께 시간보내기, 그 외 과외활동 등과 같은 인습적인 활동에 열중하는 정도를 말한다. 청소년들이 이런 인습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청소년비행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았다. 신념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인정, 특히 법과 사회규칙이 도덕적으로 옳으며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의 정도를 말한다. 청소년들이 이런 신념이 약하면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유대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설명한 연구들은 제법 존재한다(심미영, 정규석, 2007; 임은희, 서현숙, 2007; 황성현, 2009).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기본 전제는 “비행이나 일탈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는 것이다(Akers, 1998). 이 이론은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정의(definition),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 이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적 접촉은 비행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 규범 등을 가진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정의는 주어진 행위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한다. 즉 비행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합리화를 잘 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신도 그런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별적 강화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처벌과 보상에 대한 실제적 또는 예상되는 균형을 의미한다. 즉 비행을 통해 긍정적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런 비행을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차별적 강화와 모방을 측정할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정의 또한 부정적 정의를 측정하는 문항이 없어 긍정적 정의 문항만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사회유대이론보다는 많지 않지만 제법 존재하는 편이다(유순화, 정규석, 2003; 황성현, 2009, 2010, 2012). 유순화와 정규석(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학습변인들이 학교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행동변량의 46%, 쉐터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변량의 56%를 설명하였고, 그 중 차별적 접촉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에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긴장요인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른다고 본다. 즉 그들은 여러 긴장요인으로 화, 우울감, 절망감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Agnew, 1992). 에그뉴는 비행의 원인이 되는 긴장의 원천을 첫째, 목표달성의 실패, 둘째, 긍정적 자극의 소멸, 셋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목표달성의 실패는 열망과 기대간의 격차,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격차,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 이렇게 세 가

지 범주로 다시 세분화 했다(이창한, 황성현, 김상원, 2012). 긴장의 두 번째 원천인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상실되는 사건으로, 부모의 사망이나 친구와의 이별 등과 같은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사건이 예로 제시된다. 세 번째 원천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친구들의 괴롭힘과 범죄피해경험, 교사의 폭언과 체벌 등 청소년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청소년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분노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낳으며, 이것이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한다는 것이 애그뉴의 주장이다(문병욱, 신동준, 2008). 우리나라에서 일반긴장이론을 적용한 비행연구 결과물은 제법 존재한다(문병욱, 신동준, 2008; 송아영, 박경나, 정세정, 2009; 이순래, 이경상, 2010; 윤소영, 유미숙, 2011). 예를 들면, 송아영, 박경나와 정세정(2009)은 한국청소년패널 조사를 활용한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긴장요인이 청소년지위비행과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래와 이경상(2010)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청소년 비행연구에서도 부모긴장, 학교긴장, 외모긴장, 분노감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러한 긴장을 겪을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살펴 본 세 가지 비행이론을 종합하면, 청소년비행에서 가족 또는 또래집단과의 약한 유대관계가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친한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긴장이론에서 주장하는 청소년 자신의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 부모긴장, 친구긴장 등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도구로써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을 이용하여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것이며,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이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득력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09-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의 1-2차년도 데이터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표집방법으로는 전국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을 통해 총 2,351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에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년도(2010년) 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선정된 2,351명의 중학생을 추적해 개별 면접한 결과 총 71명의 표본누락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2,280명을 수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차년도 표본 2,280명의 면접결과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지만 일부 독립변인들은 1차년도에 수집된 표본의 설문결과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2차년도의 설문 문항에는 1차년도의 설문문항과 일부 상이하고,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1차년도의 설문문항 일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 2. 변인측정

#####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청소년비행이다. 청소년비행에는 4가지 지위비행과 9가지 일반비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과 일반비행을 다 합쳐서 총 13가지 비행을 ‘청소년비행’이란 1개의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지위비행은 흡연행위, 음주행위, 무단결석, 가출 경험에 관한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비행은 조롱하기, 집단따돌림, 패싸움, 심한 구타, (돈, 물건) 뺑뺏기, (돈,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에 관한 9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각의 문항은 지난 1년간 각 비행을 한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① 있다, ② 없다는 응답지를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청소년비행은 위의 총 13가지 비행(이분형 변수)을 합쳐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3의 값을 갖는다.

## 2) 독립변인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변인들이다. 사회유대이론에서 추출된 변인으로는 참여(2문항), 관여(10문항), 친구애착(5문항), 부모감독(3문항), 부모애착(4문항), 교사애착(5문항), 신념(4문항) 등이다. 친구애착 5문항과 부모감독 3문항은 2010년 2차년도 설문지에는 없는 문항이므로 2009년 1차년도 설문지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참여변인은 ‘지난 일 년 동안 가족과 함께 또는 단체를 통해 한 1박 이상의 여행은 몇 회나 됩니까?’와 ‘지난 일 년 동안 문화 활동을 몇 회나 했습니까?’로 측정되었다. 관여변인은 10과목에 대해 ‘지난 1학기 동안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측정되었다. 친구애착변인은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부터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로 구성되어있다. 부모감독변인은 ‘부모님께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부터 부모님께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로 측정되었다. 부모애착변인은 ‘부모님께서는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부터 ‘부모님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를 사용하였다. 교사애착변인은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부터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로 측정되었다. 신념변인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를 사용하였다.

일반긴장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으로는 목표달성의 실패(1문항), 긍정적 자극의 소멸(1문항), 부정적 자극의 발생(33문항)이다. 목표달성의 실패는 가정형편으로 측정되었다. 가정형편 즉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 즉 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문병욱, 신동준, 2008). 청소년들이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했다 하더라도 각 가정의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그들의 목표를 잘 달성해 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형편변인은 ‘이 학생이 속한 가구의 지난 일 년 동안 가구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응답자의 부모설문지에서 추출하였다.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가족구성형태로 측

정되었다. 애그뉴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의 구체적인 예로 실연, 친구나 가족의 죽음, 부모의 이혼 등을 제시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의 해체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족구성형태' 변인을 사용하였다(황성현, 2012). 가족구성형태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서 (부모+자녀)와 (한조부모+부모+자녀)=1, 그 외 가족(조손가족, 한 부모가족, 기타)=0으로 더미(dummy)변인화 하였다. 부정적 자극의 발생 변인으로 충동성(5문항), 불안감(8문항), 우울감(10문항), 친구긴장(6문항), 부모긴장(4문항) 등 총5개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충동성변인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부터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감변인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부터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로 측정되었다. 우울감변인은 '기운이 별로 없다'부터 '모든 일이 힘들다'를 사용하였다. 친구긴장변인은 비행피해경험 유무로 측정되었는데, '학생은 지난 일 년 동안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해(조롱당하기, 왕따 당하기, 폭행당하기, 협박당하기, 빼앗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당하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부모긴장변인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부터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로 구성되어있다.

사회화습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으로는 정의(5항목)와 친구와의 차별접촉(13항목)을 사용하였다. 정의변인은 긍정적 정의로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부터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를 사용하였다. 친구와의 차별접촉변인은 '학생은 친한 친구 중 지난 일 년 동안 아래와 같은 행동(13가지 비행행동)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까?'로 측정되었다. 그 외 사회화습이론의 중요한 측정지표인 모방변인과 여러 개의 차별적 강화변인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에서 설문문항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었다.

### 3) 통제변인

이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인은 성별변인이다.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더미(dummy) 처리하여 연속변인화 하였다.

###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두 단계의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세 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변인들을 각각의 회귀방정식에 회귀시켰다. 이 회귀방정식에서는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청소년비행을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 각각의 독립변인들의 베타계수가 종속변인에 95%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두 번째로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세 가지 유형의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인들을 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켰다. 표 3은 모든 독립변인들이 한 회귀방정식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회귀방정식에서 제시된 결정계수( $R^2$ )를 모든 독립변인들이 포함된 통합 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 $R^2$ )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2와 표 3의 회귀방정식에서 제시된 베타계수는 각각의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빈도분석결과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청소년비행의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청소년비행 경험유무의 남녀별 비율

청소년 비행	전체 (%) (경험 有)	여 자 (%)		남 자 (%)	
		경험 無	경험 有	경험 無	경험 有
흡 연	6.2	96.6	3.4	91.1	8.9
음 주	4.7	95.2	4.8	95.4	4.6
무단결석	3.2	97.0	3.0	96.7	3.3
가 출	2.6	98.0	2.0	96.8	3.2
조롱하기	6.2	97.1	2.9	90.5	9.5
집단따돌림	3.1	97.2	2.8	96.6	3.4
패싸움	0.7	99.6	0.4	99.0	1.0
심한 구타	3.1	99.0	1.0	94.9	5.1
협 박	1.0	99.6	0.4	98.4	1.6
(돈, 물건) 뺨뜯기	1.5	99.0	1.0	97.9	2.1
(돈, 물건) 훔치기	0.7	99.4	0.6	99.3	0.7
성관계	0.1	99.9	0.1	99.9	0.1
성폭행, 성희롱	0.2	99.7	0.3	99.9	0.1

중2 청소년들이 13가지 각종 비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2%에서 6.2% 정도로 나타났다.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비행은 흡연행위(6.2%)와 친구들을 조롱하기(6.2%)로 나타났으며 성관계와 성폭행 및 성희롱은 각각 0.1%와 0.2%로 가장 낮았다. 지위비행경험에서 가장 차이가 드러나는 비행은 흡연행위로 여자청소년은 3.4%인데 반해 남자청소년은 그 2배인 8.9%로 나타났다.

음주행위에 있어서는 여자 : 남자 비율이 4.8% : 4.6%로 여자청소년의 음주비율이 약간 높았다. 그 외 지위비행인 무단결석과 가출에서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가출보다 무단결석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비교적 비행의 강도가 심한 중비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패싸움, 심한 구타, 협박, 뺨뜯기,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 및 성희롱의 경험비율은 1%대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학교 폭력의 주된 매체인 집단따돌림과 심한 구타의 비율은 각각 3.1%로 지위비행을 제외한 비행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한 구타의 경우, 여자 : 남자의 비율이 1.0% : 5.1%로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의 구타경험비율은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 비행에서 가장 경험비율이 높은 것은 조롱하기(9.5%)이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음주행위(4.8%)로 나타났다.

## 2. 회귀분석 결과

표 2는 사회유대, 일반긴장,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이 각 각 어느 정도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이론들을 따로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각의 회귀분석 결과, 사회유대이론은 청소년비행의 2.4%를 설명하고 있어 유대이론의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가지 독립변인 중에서 관여 > 참여 > 신념 순으로 95% 이상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 외의 다른 독립변인들은 청소년비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긴장이론은 청소년비행의 7.7%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사회유대이론의 설명력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7가지 독립변인 중에서, 친구로부터 비행피해를 당할수록(친구긴장 :  $p < .001$ ), 청소년 자신의 충동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충동성 :  $p < .001$ ), 부모와 같이 생활하지 않을수록(긍정적 자극의 소멸 :  $p < .001$ ), 가계수입이 적을수록(목표달성의 실패 :  $p < .05$ ) 청소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신의 불안감과 우울감은 청소년비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습이론은 청소년비행의 11.3%를 설명하고 있어 사회유대이론보다는 약 5배, 일반긴장이론보다는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p < .001$ ), 긍정적 정의 관념이 적으면 적을수록( $p < .001$ ) 청소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청소년비행
<u>사회유대이론</u>	
참 여	.089***
관 여	.119***
친구애착	-.012
부모감독	.004
부모애착	.010
교사애착	.018
신 념	.055*
결정계수 (R <sup>2</sup> )	.024
사 례 수 (N)	1,951
<u>일반긴장이론</u>	
목표달성의 실패	.053*
긍정적 자극의 소멸	.092***
충동성	.174***
불안감	-.014
우울감	-.027
친구긴장	.189***
부모긴장	.030
결정계수 (R <sup>2</sup> )	.077
사 례 수 (N)	2,135
<u>사회학습이론</u>	
친구와의 차별접촉	.289***
정 의	.145***
결정계수 (R <sup>2</sup> )	.113
사 례 수 (N)	2,277

\*\*\* $p < .001$ , \*\* $p < .01$ , \* $p < .05$

결론적으로 세 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각 각의 독립변인들이 단독으로 청소년비행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파악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긴장이론이고 사회유대이론의 변인들은 청소년비행

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변인은 2개로 사회유대이론과 일반긴장이론에서 추출된 7개의 독립변인보다 그 수가 3.5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설명력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차별접촉변인의 베타계수는 .289로 16개의 독립변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3은 성별을 통제된 상태에서 세 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인들을 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킨 결과표이다. Model 1은 모든 독립변인들이 한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것이며, Model 2는 사회유대이론이, Model 3은 일반긴장이론이, Model 4는 사회학습이론이 각각 통합회귀방정식에서 제외된 모델이다. Model 1에서 모든 독립변인들은 청소년비행 변량의 18.2%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유대이론이 제외된 모델 2는 17.6%, 일반긴장이론이 제외된 모델 3은 13.8%, 사회학습이론이 제외된 모델 4는 9.0%의 청소년비행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이 통합모델에서 제외됐을 때의 설명력은 18.2%에서 17.6%로 약 0.5%의 설명력 감소가 나타났지만, 사회학습이론이 제외됐을 때의 설명력은 약 1/2 (18.2%-9.0%)로 감소함으로써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들이 청소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사회유대이론의 변인 중에서는 참여, 관여, 친구애착 변인이 95% 이상의 신뢰수준 내에서 청소년비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모감독, 부모애착, 교사애착 변인은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긴장이론 중에서는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충동성, 친구긴장 변인이 모든 회귀방정식에서 99% 이상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동성과 친구긴장 변인은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 자신의 충동성을 잘 억제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친구들로부터 비행피해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청소년비행에 대한 통합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Model 1 (통합모델)	Model 2 (유대이론제외)	Model 3 (긴장이론제외)	Model 4 (학습이론제외)
<u>통제변인</u>				
성 별	.105***	.075***	.103***	.134***
<u>사회유대이론</u>				
참 여	.059**		.065**	.076**
관 여	.098***		.104***	.110***
친구애착	-.051*		-.024	-.060*
부모감독	-.012		-.004	-.009
부모애착	-.006		.007	.005
교사애착	-.008		-.025	.033
신 념	.013		.013	.035
<u>일반긴장이론</u>				
목표달성의 실패	.065**	.055**		.067**
긍정적 자극의 소멸	.086***	.082***		.090***
충동성	.113***	.121***		.152***
불안감	-.006	-.006		-.009
우울감	.020	.004		.004
친구긴장	.118***	.161***		.143***
부모긴장	-.004	.005		.000
<u>사회학습이론</u>				
친구와의 차별접촉	.275***	.273***	.280***	
정 의	.100***	.108***	.132***	
결정계수 (R <sup>2</sup> )	.182	.176	.138	.090
사 례 수 (N)	1,827	2,134	1,949	1,828

\*\*\* $p < .001$ , \*\* $p < .01$ , \* $p < .05$

사회학습이론 중에서는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과 정의변인이 모든 회귀방정식에서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청소년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친한 친구들이 청소년비행을 많이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긍정적 사회적 정의 관념이 적으면 적을수록 청소년 자신은 청소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회귀모형을 종합하면,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학교활동 외의 참여율이 낮을수록(참여), 학교성적이 낮을수록(관여), 가족의 연평균 수입이 적을수록(목표달성의 실패), 양쪽 부모와 살지 않을수록(긍정적 자극의 소멸), 매사에 충동성이 강할수록(충동성), 친구들로부터 비행피해경험이 많을수록(친구긴장), 친한 친구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친구와의 차별적접촉), 긍정적 사회적 정의 관념이 약할수록(정의) 청소년 자신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 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들 중에서 사회학습 변인들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변인이 청소년비행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 IV. 결 론

이 연구의 결론으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비행이론을 적용한 결과 사회유대이론의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을 거의 설명하지 못했으며, 일반긴장이론의 일부 독립변인들과 사회학습이론의 두 가지 독립변인 모두는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들 중에서 사회학습이론의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변인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친 독립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사회유대 변인과 일반긴장이론의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의 변량을 각 각 2.4%, 7.7%만을 설명하고 했으며 사회학습변인은 청소년비행의 11.3% 변량을 설명함으로써 세 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뛰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세 가지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힌 네 가지 회귀방정식에서 사회학습변인들이 제외된 모델과 포함된 모델을 비교해 볼 때, 사회학습변인들이 통합모델에서 제외됐을 때 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사회학습 변인들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유대변인 중에서는 참여, 관여, 친구애착 변인이 청소년비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잘 설명하고 있었으며, 일반긴장

이론 중에서는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충동성, 친구긴장 변인이 청소년비행과 깊은 관련성이 있었다. 두 가지 사회학습이론의 변인인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과 정의는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청소년비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잘 설명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들 중에서 사회학습 변인들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변인이 청소년비행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구의 비행이론에 바탕을 둔 변인들을 추출하여 한국청소년들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재경, 정슬기, 2011; 황성현, 2009, 2010, 2012; Hwang & Akers, 2003, 2006).

이 연구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행이론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검증된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을 한국청소년에 적용하여 그 각각의 요인들이 청소년비행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인 외 청소년비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 또래집단과 부모의 영향력 중 어느 쪽이 강한지를 밝히려는 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 나타난 여러 가지 회귀분석결과 부모감독, 부모애착, 부모긴장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친구애착, 친구긴장,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변인은 대체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특히 청소년비행을 연구하는 상당수의 학자들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와 양육방식 등이 청소년비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후연구에서는 이 연구에 사용된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또래집단과 부모의 영향력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을 사용하여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은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전까지는 그 이론들이 각각 따로 분리되어 검증되었거나 기껏해야 두 가지 이론 정도가 비교 검증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론을 통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세 가지 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문병욱, 신동준 (2008).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행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1), 33-60.
- 송아영, 박경나, 정세정 (2009). 청소년지위비행에 대한 일반긴장이론의 부분적 검증: Ping의 2단계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309-337.
- 심미영, 정규석 (2007). 한국 청소년비행에 관한 Hirschi 이론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회**, 12(3), 147-171.
- 유순화, 정규석 (2003). 청소년 음주·흡연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0(2), 195-214.
- 윤소영, 유미숙 (201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59-75.
- 이순래, 이경상 (2010). 생활긴장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4), 5-32.
- 이재경, 정슬기 (2010).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음주 영향요인의 경로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24-153.
- 이창한, 황성현, 김상원 (2012). **신 범죄학 & 형사정책**. 서울: 박영사.
- 임은희, 서현숙 (2007). 성역할 정체감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사회통제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14(3), 53-78.
- 전영실 (2007). 가족유대와 비행의 관계: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9(1), 277-30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성현 (2009).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관한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이론적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0(1), 113-139.
- \_\_\_\_\_ (2010).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비행이론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49-68.
- \_\_\_\_\_ (2012). 청소년 흡연·음주행위의 원인에 대한 비행이론적 접근: 일반긴장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2, 23-42.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wang, S. H., & Akers, R. L. (2003). Substance use by Korean adolescents: A Cross-Cultural test of social learning, social bonding, and self-control theories. In Ronald L. Akers, & Gary F. Jensen (Eds.),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 guide for the new centur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11(pp.39-64).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Hwang, S. H., & Akers, R. L. (2006).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drug use in Korea.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1, 51-69.

## ABSTRACTS

### A theoretical approach regarding social learning, social bonding, and general strain theory on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Hwang, Sunghyun\* · Lee, Kanghoon\*\*

This study seeks to explain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by using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and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well each of the theories do and how well they do so compared to each other in explaining juvenile delinquency. The data a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2,280 middle school students taken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0. Multiple OLS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social learning theory was strongly supported as an explanation for juvenile delinquency, while general strain theory was supported to some extent. When social learning variables are excluded from the full equation, the change in R<sup>2</sup> is dramatic, indicating that it is the social learning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mpact on dependent variables than other theories.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test three major theoretical models and in doing so, makes a number of important contributions toward the further utilization of social learning in investigating juvenile delinquency amongst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social bonding theory, social learning theory, general strain theory

투고일 : 2013. 5. 30, 심사일 : 2013. 8. 1, 심사완료일 : 2013. 8. 12

---

\*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Gangwon Provincial College

